



경련성 질환과 그 관리

이상은 / 학교건강관리소 의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호교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사례별로
연재하고 있다. 집필은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 팀이
전공별로 맡아주고 있다.
(편집자 주)

경련성질환(간질)은 가장 흔한 만성신경질환 중의 하나로 신경계를 침범하는 여러 질환의 경과 중 또는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중추신경계기능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장애이며,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서 반복되는 경련이 간격을 두고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간단한 잠시 동안의 의식상실이나 행동의 정지에서부터 복잡한 행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경련성발작(Convulsive attack)은 생리학적으로 볼 때 뇌의 어떤 부위에서 신경방전(neuronal discharge)이 갑작

스럽고 과도하게 일어나 반복적인 의식의 상실, 불수의적인 경련운동, 감각증상, 자율신경 및 정신증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경련성질환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5명으로 추정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고(100 : 77정도), 초산아에서 현저히 많다.

어느 연령에서도 올 수 있으나 30%가 4세 이전에 발작을 시작하며, 50%가 10세 이전에, 75%가 20세 이전에 발작을 시작하여 소아 및 청소년 층에 많은 질환이다. (첫 발작에 있어서)

경련성질환은 원인에 따라 종후성과 원발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이란 반복되는 경련성 발작에 대한 원인이 현재 없다는 의미이며, 그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종후성인 것이다.

즉 경련성 발작이 어떤 질환의 2차적 증상임을 의미한다.

경련성 발작을 쉽게 동반하는 질환이나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다.

풍진 및 톡소플라스모시스의 자궁내감

**경련성질환의 관리에
이어서 소아의 경우 학교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야하고, 성인의
경우는 몇 가지 직종은
피해야 하지만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 특정약물의 임신 초기의 사용, 방사선 조사, 출산 시의 외상도 경련발작의 원인이 된다.

소아기에 저산소증을 겪은 경우 신경 세포가 손상되어 경련성발작이 될 수 있으며 두부손상도 발작의 원인이 된다. 소아의 바이러스성뇌염은 물론 세균, 곰팡이, 아메바성감염에 의한 뇌막염이나 뇌염도 경련성발작을 동반한다.

뇌종양도 경련성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성인기에 초발된 국소성간질은 항상 뇌종양의 가능성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양장애나 대사장애, 납 등의 중금속 중독도 경련성발작을 초래하며, 민감한 사람은 특정약물에 의해서도 경련성발작을 일으키게 된다.

뇌출혈을 비롯한 뇌혈관질환(동정맥기형, 혈전정맥염)에서도 경련성발작은 비교적 흔하여 모든 뇌출혈의 15%에서 간질이 나타난다.

발작형태에 따라 분류해 볼 때 경련성 질환은 의식상실과 함께 쓰러지면서 강직성발작이 오는 대발작과 경련이 거의 없이 5~15초간 짧은 의식상실이 오는 소발작으로 나뉘고, 그외에 정신발작,

정신운동성발작, 자율신경발작이 있어 각각 다양한 특징이 있고 발작의 형태가 겹쳐진 경우도 있으며 치료체제 역시 발작형태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개입을 요하게 된다.

경련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가능한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소아의 경우 학교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야하고, 성인의 경우는 몇 가지 직종은 피해야 하지만 직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취급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은 확실히 부적당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성을 환자는 물론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령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의한다든지 목욕탕물은 얕게하고 동반자 없이 수영하는 일을 금한다든지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련성발작의 경도와 빈도수를 감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한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른다.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용량과 종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2)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일어나는 적고 큰 변화(수면상태, 피부병, 어지러움 등)를 일일이 의사에게 보고한다.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식사를 제 때에 하고 술, 담배를 삼간다. 술을 마시면 발작을 하기 때문이다.
- 4)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동안 다른 약을 써야 할 때는 의사와 상의한다. ‡